

보도참고자료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일시	2011. 8. 9(화) 배포시		
배 포 일 시	2011. 8. 9(화) 15시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한국은행 국제총괄팀 금융감독원 외환시장팀
담당과장	류상민 과장 (2150-4750) 이형일 과장 (2150-2750) 이윤수 과장 (2156-9730) 김한수 팀장 (759-5737) 김원호 팀장 (3145-7932)	담 당 자	김봉준 사무관 (2150-4751) 김영훈 서기관 (2150-2751) 강영수 사무관 (2156-9731) 문한근 차장 (759-5738) 김은성 선임 (3145-7933)

제목: 외채구조·외화유동성, 한국은 2008년과 다른 상황

- ◇ '08년 Lehman 도산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외채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외화유동성도 양호한 상황
- 최근 CDS 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08년 위기와 여타 국가와 비교해볼 때 안정적인 수준

1. 외채구조

- (외채구성) '11.3월말 3,819억불로 '08년 위기당시 3,651억불 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지불능력이 충분한 정부부문 외채가 증가
 - 외채증가의 가장 큰 요인인 외국인의 국채투자는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
 - 또한, 최근에는 외환보유액 다변화, 만기보유 등의 목적을 지닌 외국 중앙은행·연기금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변동성이 작음

○ '08년 위기당시에 비해 은행부문 외채·단기외채는 큰 폭 감소

- 금년 들어 은행부문 단기외채가 증가하였으나,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국내 외화채권 투자 금지(이른바 '김치본드')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 결과, 은행부문 외채는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단위: 억불)

	'08.9말(A)	'10.12말	'11.3말(B)	증감(B-A)
총외채	3,651	3,600	3,819 [100.0%]	+168
정부부문	534	797	825 [21.6%]	+290
국채·통안채투자	(418)	(641)	(667)	(+249)
은행부문	2,195	1,738	1,919 [50.2%]	△276
은행 단기외채	(1,594)	(1,013)	(1,151)	(△443)
비은행금융·기업	922	1,065	1,075 [28.1%]	+153

* 은행외채/총외채(%): ('08.9)60.1→('08)53.4→('09)52.2→('10)48.3→('11.3)50.2

□ (건전성지표) 금융위기 이전보다 단기외채비중 등 획기적으로 개선

-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07년말 48.1%, Lehman 사태 당시인 '08.9월말 51.9%에서 '11.3월말 38.4% 수준으로 감소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08년 위기당시 79.1%에서 '11.3월말 49.1%로 크게 감소

(단위: 억불)

	'07년말	'08.9말	'09년말	'10년말	'11.3말
총외채(A)	3,334	3,651	3,454	3,600	3,819
단기외채(B)	1,603	1,896	1,492	1,350	1,467
단기외채비중(B/A)	48.1%	51.9%	43.2%	37.5%	38.4%
단기외채/외환보유액	61.1%	79.1%	55.3%	46.3%	49.1%

□ (타국과 비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35.5%('10년말)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음

○ 다만, 신흥국들 보다는 대체로 다소 높은 수준이나 우리경제의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개방도 등에서 기인

(단위: %, '10년말)

	선진국					신흥국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터키	인니	멕시코	브라질
총외채/GDP	415.5	198.8	157.0	98.6	47.6	39.1	28.3	23.4	16.8

□ (순채권국) 우리나라는 '11.3월말 대외채권(4,660억불)이 대외채무(3,819억불) 보다 841억불 많은 순채권국

* 단순 비교시 대외채무로 지급해야할 이자비용보다 대외채권으로 수취할 이자수익이 큼

(단위: 억불)

	'07년말	'08.9말	'09년말	'10년말	'11.3말
대외채무(총외채; A)	3,334	3,651	3,454	3,600	3,819
대외채권(B)	4,171	3,957	4,107	4,483	4,660
순대외채권(B-A)	836	306	653	883	841

2. 외화유동성

□ (외화유동성) 최근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08년 9월 리만사태(9.15일) 및 09년 3월 위기설 당시에 비교하여 매우 양호한 수준

○ '09년 하반기이후 은행의 외화차입 재개, 외국인채권 자금 유입 등으로 국내 외화유동성은 크게 개선

	'08.9.1	'08.9.16 (리먼 後)	'08.12.5 (최저)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8.8	'11.8.9 (14:30)
스왑마진(1개월)	0.20	△2.00	△20.50	△4.00	1.20	2.05	2.40	2.30
스왑마진(3개월)	0.70	△2.00	△29.00	△4.00	3.50	5.40	6.40	6.10

* 주) 스왑마진 : 「선물환율 - 현물환율」로서 상승할 경우 유동성 상황이 좋음을 의미

○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여건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

- '11.8.8일 기준 외화차입 금리(O/N 차입금리 기준)는 0.15%로 '08.9월말 (10.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O/N 차입금리(%) : ('08.8월) 2.2 ('08.9월) 10.0 ('11.7월) 0.15 (8.8일) 0.15

□ (은행의 외화건전성) 예대율의 경우, 규제수준인 100% 미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하고 있으며, BIS비율 등 건전성 비율도 대폭 증가

○ 외화유동성 비율의 경우에도 지도기준인 85%를 지속 상회

	'08년 위기전('08.8말)	현재 상황 ('11.6말)	증감
예대율(CD 제외)	122.4%	97.8%	△24.6%
BIS 비율	11.36% ¹⁾	14.34% ²⁾	+2.98%
기본자본 비율	8.54% ¹⁾	11.28% ²⁾	+2.74%
외화유동성 비율	101.7% ³⁾	111.1%	+9.4%

1) '08.6말, 2) '11.3말, 3) '07.12말(유동화가중치를 미적용한 수치로 '11.6말과 직접 비교 곤란)

□ (외환보유액) 위기사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외환보유액 규모는 충분한 수준

○ '08년 Lehman 사태 이후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세계 7위의 보유국

* 외환보유액(억불) : ('08말)2,012 → ('09말)2,700 → ('10말)2,916 → ('11.7말)3,110

- IMF도 연례협의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 수준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Staff report, '11.8.5)

- 지난 '08년 금융위기('08.9~'08.12월)시 실제 유출된 외국자본의 규모*(695억불)에 비추어서도 충분히 큰 규모임

* 국제수지 기준, (외국인주식투자 + 외국인채권투자 + 단기차입)의 합계

○ 또한, 유동성 측면에서도 긴급시 대외지급수요를 감내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

3. CDS 프리미엄과 국가신용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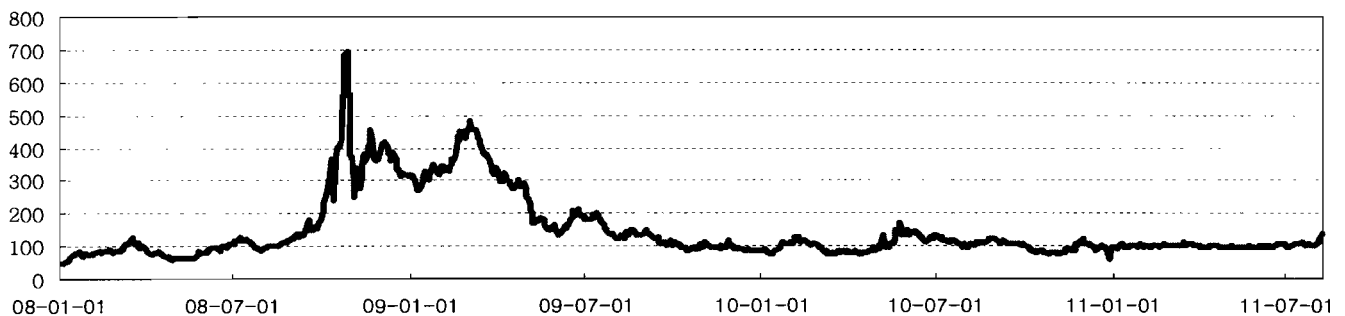
□ (CDS 프리미엄) 최근 한국물 CDS 프리미엄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글로벌 차원에서 위험 수준이 상승한 영향

○ 8.8(월) '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

* 주요국의 CDS 프리미엄 추이(5년물, bp)

(프랑스) ('08년말) 54 ('09년말) 32 ('10년말)108 ('11.7월말)122 ('11.8.8일)159
 (일 본) ('08년말) 44 ('09년말) 68 ('10년말) 72 ('11.7월말) 90 ('11.8.8일) 94
 (벨기에) ('08년말) 80 ('09년말) 54 ('10년말)220 ('11.7월말)184 ('11.8.8일)243
 (이태리) ('08년말)157 ('09년말)109 ('10년말)238 ('11.7월말)288 ('11.8.8일)344
 (태 국) ('08년말)256 ('09년말) 96 ('10년말) 99 ('11.7월말)123 ('11.8.8일)150
 (한 국) ('08년말)319 ('09년말) 85 ('10년말) 94 ('11.7월말)103 ('11.8.8일)136

'08년 이후 한국물(5년) CDS 프리미엄



□ (신용등급)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S&P는 8.8(월) 美 신용등급 강등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신용 등급에 즉시(immediate)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

* 「U.S. Downgrade has no immediate impact on Asia-Pacific Ratings」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전히 긍정적인 성장전망과 높은 수준의 국내 저축률, 건전한 가계·기업부문 등을 근거로 제시

* Moody's는 '10.4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1단계 상향조정(A2 → A1)

4. 외국인 채권투자

□ (외국인 채권투자) '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장기 목적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확대

- 비교적 장기(만기 3년 이상)인 국고채의 보유 비중이 확대되고, 통안채(만기 2년이하) 보유 비중은 축소

* 외국인 채권 보유비중 추이(%)

국고채: (07년)11.1 → (08년) 8.4 → (09년) 9.8 → (10년)15.4 → (11.8.8) 17.3

통안채: (07년) 7.1 → (08년)12.7 → (09년)18.8 → (10년)15.5 → (11.8.8) 13.2

- 일반 투자자에 비해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외국 중앙은행·연기금의 투자가 확대

* 전체 외국인 보유규모 대비 중앙은행·연기금 보유비중

중앙은행: ('08년) 8.0% → ('11.7월) 27.5%

연 기 금: ('08년) 0.8% → ('11.7월) 1.6%

5. 평가

□ '08년 Lehman 도산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외채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외화유동성도 양호한 상황

- 최근 CDS 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08년 위기와 여타 국가와 비교해볼 때 안정적인 수준

□ 일부 투자은행 보고서와 같이 한정된 지표만으로 위기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단편적인 접근방식

- 특정 국가의 위험도는 예대율, coverage 비율* 등 일부지표가 아닌 실물경제·재정여건·대외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접근할 필요

* 외환보유액/외화조달 필요액(단기외채+중장기 대외부채중 1년 이내 상환금액-경상수지)

○ 또한, 과거 글로벌 위험요인 발생시 원화의 변동성이 컸다는 것만을 이유로,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한국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하는 것도 단순한 일반화의 오류를 내포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엔화, 유로화보다 원화 변동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 달러화대비 환율 변동성(% , 일일변동률의 기간중 평균)

① 유로화: (08년) 0.64 (09년) 0.61 (10년) 0.58 (11년 1사분기) 0.50

② 엔 화: (08년) 0.68 (09년) 0.68 (10년) 0.48 (11년 1사분기) 0.49

③ 원 화: (08년) 0.99 (09년) 0.71 (10년) 0.60 (11년 1사분기) 0.41

□ 아울러,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채권 과세환원 조치 등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조치의 시행 결과, 자본 유출입 및 환율의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평가

기획재정부 대변인